

오후 4시30분 姜시장 참여 PT… 오후 7시30분 “Gwangju Korea”

개최지 결정 어떻게 이뤄지나

FINA위원 21명 비공개 투표… 과반수 득표로 선정
탈락도시 대상 2021년 유치도시도 함께 결정할 듯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릴 도시를 결정하는 데는 유치 후보도시들의 최종 프레젠테이션(PT)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권을 쥐고 있는 FINA(국제수영연맹) 집행위원 21명은 유치 후보도시들의 실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투표 당일 이들 위원들의 표심을 움직이는 데는 PT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 대표단도 이 같은 점을 감안, 유치위원장인 강운태 광주시장직접 PT에 참여해 힘을 실어주는 전략을 수립했다. 19일 오전 9시30분(현지시각)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랜드마리나 호텔(Grand Marina Hotel) 리셉션장에서 진행되는 광주 대표단의 PT는 유치위원장인 강운태 광주시장 및 이기흥 대한수영연맹회장의 인사말과 지원의지 표명, 광주 개최 당위성 및 경기장 인프라, 경기운영계획 등 광주의 준비상황, 대회마케팅 운영계획 순서로 진행된다. PT 중간중간에는 광주소개와 경기시

■19일 개최지 투표 일정 (한국시각)

새벽 1시 PT순서 추첨

↓

오후 4시 30분 프레젠테이션

↓

오후 7시 30분 유치도시 발표

설에 대한 그래픽 영상 등을 가미해 FINA 집행위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강운태 시장은 인사말과 대회 지원의지 및 계획 등을 직접 영어로 설명할 계획이다. 이기흥 대한수영연맹회장도 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는 등 총 5명의 프레젠테이션 30분간의 PT에서 ‘준비된 광주’를 소개하고 ‘광주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한 표를 호소할 예정이다. 광주에서 도착한 광주시대표단과 대규모 응원단도 현장에서 PT를 지켜보며 힘을 보태게 된다. PT에 참여할 후보도시가 3개팀에 불과한 만큼 PT순서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광주 남부대 캠퍼스 안에 짓고 있는 연면적 1만9238㎡,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수영장 조감도. <광주시 제공>

것이라는 게 광주시 유치대표단의 판단이다.

유치 후보도시들이 준비한 30분씩의 PT가 모두 마무리되면 FINA위원들은 곧바로 투표에 들어간다. 그동안 유치후보도시를 상대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와 PT내용 등이 모두 평가 대상이다. FINA위원들은 먼저 2019년 유치도시를 결정할 뒤, 탈락한 후보도시를 상대로 2021년 유치도시를 물어 2021년 유치도시도 함께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방식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비공개투표를 통해 과반수를 획득한 도시가 최종 유치도시에 선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홀리오 마글리오네 FINA회장은 이어 낮 12시30분(한국시각 오후 7시30분) 바르셀로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식 경기장인 팔라우 세인트(Palau Saint Jordi) 경기장 내 메인프레스 콘퍼런스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를 공식 발표한다.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광주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발표되면, 지난 2년간 광주시가 긴장과 불확실성 속에서 전세계를 상대로 발로 뛰며 흘린 땀과 열정이 결실을 맺게 된다.

/스페인 바르셀로나=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하계U대회 “2015년 광주에서 만나요”

▲“광주로 오세요” 대한민국 선수단이 18일(한국시각) 러시아 카잔 아레나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폐막식에서 ‘2015년 대한민국 광주에서 다시 만나요’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두고 행진하고 있다.

◀대회기 광주로 18일(한국시각) 오전 러시아 카잔 아레나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폐막식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의 클로드 루이 갈리앙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회장으로 부터 대회기를 넘겨받고 있다. 다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2015년 대한민국 광주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국민응원단 100명 스페인교민들과 함께 뜨거운 응원전

광주시청 문화광장선 시민 3000명 참여 유치기원 행사

뜨거운 응원 열기

2019년 제 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에 기원하는 응원전이 스페인 현지와 국내에서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18일 현재 개최도시 투표 장소인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랜드 마리나 호텔 주변에선 현지 교민과 광주에서 급파된 선발대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광주 유치를 기원하는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또 이날 광주에서 출발한 유치 대표단 100명도 19일 스페인 현지에 합류해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광주에서도 대회 유치를 기원하는 시민 한마당 행사가 펼쳐진다. 시는 19일 오후 6~9시까지 시청 문화광장에서 시민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치기원 한마당 행사를 열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형 멀티비전을 통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지 발표 상황이 중계된다.

또 광주가 개최 도시로 확정될 경

우 남진을 비롯한 리트싸이 황민우, 진성, 진국아, 광광걸스, 사헬, 치바사운드, 흥진영 등 초대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열린다.

광주시 관계자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의 역사적 순간을 시민과 함께하자는 의미를 담아 한마당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150만 광주시민의 유치 의지와 단합된 힘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스포츠 러빙 시티’ 타이틀로 완벽한 준비

아부다비 ‘오일머니’…부다페스트 ‘국가차원 지원’

3개 도시 유치 전략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전이 광주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등 3개 도시로 압축되면서 각 도시의 유치전략과 유치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3개 도시중 가장 먼저 유치전에 뛰어들어 2년여동안 준비하고 공들여온 광주의 유치가 가장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부다페스트와 아부다비가 자국의 수도인데다, 국가차원에서 유치에 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만찮은 상대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헝가리는 자국 출신의 타마스 기아르파스 FINA집행위원을 중심으로 유럽과 집행위원 등을 공략하고 있으며, 특히 ‘동유럽의 파리’라는 애정을

얻을 정도로 아름다운 세계적인 휴양도시라는 강점을 집행위원들에게 알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오일머니”로 상징되는 부국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는 막대한 자금력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집행위원들을 설득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막판 유치전이 치열해지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오일머니가 뿌려지고 있다는 설마저 나오는 등 강력한 경쟁 도시로 급부상한 상태다.

이에 맞서는 광주는 ‘스포츠 러빙 시티(Sports Loving City) 광주’를 유치 타이틀로 정하고,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해 ‘최고의 준비를 갖춘 최적의 도시’라는 점을 집중 부각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 2년여의 유치기간동안 FINA집행위원이 모이는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여하는 등 광주의 유치 열정을 전 세계에 알리고, 최근 FINA의 도시실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어냈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우리나라 수영연맹과 FINA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국제수영연맹에서도 광주의 유치 의지에 여러차례 찬사를 보냈다”면서 “특히 FINA가 도시실사 때 준비상황에 매우 만족한 점은 광주의 유치를 유력하게 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동양 최대규모 백련지에서
대한불교조계종과 함께하는

2013 무안-여곡꽃축제

2013. 7. 24 ~ 28 / 5일간

장소 : 회산백련지 일원

(전남 무안군 일로읍)

주최/주관

무안군 대한불교조계종 호남 6교구본사

문의 : 061)450-5472 / tour.mu-an.go.kr

빛의만평

- 김중두

국민들은 이게 더 궁금하다